광주·전남 수출 12개월 연속 하락

수입 줄어 불황형 무역흑자…전남 5년만에 적자

광주세관 2019년 수출입동향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12개월 연속 하락했다. 역대 최장기간 마이너스다.

광주·전남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광주의 경우 수출·수입이 모두 줄어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냈다. 하지만 전남은 5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여수국가산단 내 석유화학 산업의 부진이 이유로 분석된다.

16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19년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대비 10.3% 감소한 459억9100만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8.5% 감소한 386억8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18.9% 감소한 73억11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광주 수출은 전년대비 8.5% 감소한 134억1400만달러, 수입은 6.1% 감소한 58억99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10.4% 감소한 75억1500만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수출의 경우 수송장비(2.7%), 반도체(20.0%), 가전제품(10.8%), 기계류(5.6%), 타이어(10.0%) 모두 감소했다. 수입은 기계류(1.3%)는 증가한 반면 반도체(8.7%), 가전제품(9.9%), 고무(12.5%), 화공품(5.2%)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미국(0.5%)은 증가했으나 동남아(14.9%), 중국(17.7%), EU(20.3%), 중남미(17.5%)는 감소했다. 수입은 중국(2.4%), EU(5.0%), 미국(0.7%)은 증가했으나 동남아(11.2%), 일본(5.6%)은 감소했다.

문제는 월별 수출 실적이 전년동월대비 12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것이다.

역대 최장기간 마이너스로, 미·중 무역 갈등과 한·일 무역 전쟁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수출이 크게 감소했지만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은 그만큼 수입도 줄어서다. 전형적인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인 것이다.

전남은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전남 무역수지는 2014년까지 적자였다가 2015년 흑자전환에 성공한 뒤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과 수송장비, 기계류 등의 수출 감소 등으로 결국 적자를 기록했다.

전남지역 지난해 수출은 전년대비 11.0% 감소한 325억7700만달러, 수입은 8.9% 감소한 327억81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132.3% 감소한 2억4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은 철강제품(0.1%)은 증가했으나, 화공품(12.5%), 석유제품(13.5%), 수송장비(9.0%), 기계류(13.2%)는 감소했다. 수입은 철광(23.4%)은 증가했으나, 원유(10.2%), 석탄(11.0%), 석유제품(27.5%), 화공품(6.7%)은 감소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48.05 (+17.07)	↑ 금리 (국고채 3년)	1.43 (+0.04)
↑ 코스닥	686.52 (+7.36)	↑ 환율 (USD)	1161.10 (+4.10)

임낙송 한전 광주전남본부장이 16일 광주 양동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한전 제공〉

광주신세계 이벤트홀에 명품숍…"홍보 위한 임시매장"

1층 전시홀 구찌매장 '논란'
신세계 "공익형 운영 방안 마련"

㈜광주신세계가 공익형 행사를 열어야 할 매장 1층 공간에 허용용도를 어기고 해외명품 매장을 열어 논란이다.

16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14일 백화점 1층 '구찌' 매장을 철거하고 원상 복귀하라는 시정명령을 건물 소유주인 ㈜금호터미널에 내렸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10일부터 '전시 및 이벤트홀'로 분류된 이 공간에 '구찌'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구찌 코리아 유한회사에 148.82㎡(45평) 규모 공간을 내주고 판매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광주신세계 건물은 금호터미널 부지에 묶여있는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이다. 서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구찌가 들어선 공간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대기공간'으로, 휴식과 편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관공서·시민단체·대학 등과 연계된 전시회·문화행사 등이 열려야 한다.

광주시 서구 도시계획상 공익 공간으로 쓰여야 할 ㈜광주신세계 1층 전시 및 이벤트홀에 16일 구찌 팝업 스토어가 들어서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문제는 이 공간이 문화행사 용도로 분류된 2003년부터 17년 동안 광주신세계는 각종 영리목적을 지닌 할인행사를 열어왔다는 점이다. 급기야 이번에는 고가 해외명품 매장을 들이며 아예 판매시설로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인 금호터미널은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항의를 받고 서구 측에 위법 여부를 문의했다. 서구는 지난 13일 현장 실사를 통해 허용 용도를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다.

광주신세계는 10여 년 전부터 지역 직거래 장터인 '호남물산전', '우수 중소 기업 상품전', '광주리(RE) 장터' 등 공익행사 대부분을 백화점에서 터미널로 가는 출입 공간에서 진행해왔다. 금호터미널 측은 출입 공간에서 공익행사를 열면서 생기는 시민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신세계가 20년 가까이 건물 허용용도를 어기고 있다는 비판에도 판매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데는 '꼼수 장사' 목적이 있지 않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터미널의 규모 또는 구조를 변경하면 사업자는 면허취소나 사업정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시정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처벌 규정이 유명무실하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2018년 1352억1300만원(공시 기준) 매출을 올렸다. 지난 3분기 기준 명품 매출은 전년보다 30% 뛰었다.

광주의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백화점이 생길 당시 허가당국으로부터 터미널 시설로 인가를 받으면서 백화점 설립 명분을 최대한 양보했는데 각종 할인전에 모자라 이번에는 인테리어를 바꿔가며 해외 명품숍을 낸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해당 매장은 컬렉션 홍보를 위한 팝업 스토어 개념으로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며 "일부 지적에 따라 앞으로 전시 및 이벤트홀 공간을 공익형 행사로 채울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전, 전통시장에 5년간 285억 지원

전기요금 특례할인 종료 보완

한국전력이 지난해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종료하면서 보완책으로 5년간 285억원 지원책을 내놓았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6억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고 광주양동시장 전기설비 개선을 위해 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전은 전국 1450여개 전통시장에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전방위 맞춤형 지원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매년 57억원씩 5년간 총 285억원을 투입해 한전의 고유 사업과 연계한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등 3개 분야에서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맞춤형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서구 양동시장에서 전기설비 정비 공사에 착수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전은 가림막 때문에 개선이 어려웠던 전기설비를 총 사업비 7억원을 들여 공사에 들어간다. 다음달 준공 목표인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 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한전 측은 기대하고 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2011년 7월 도입된 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했다.

2018년 기준 광주·전남지역 할인액은 1억300만원으로 1122호가 할인을 받았다. 고객당 연간 9만1800원을 할인받은 셈이다. 전국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원, 고객 수는 월 평균 2만4000가구 수준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제조업체 "1분기 체감경기 싸늘"

경기지수 7포인트 하락 79

광주와 인근 전남지역 제조업체들은 체감경기가 1분기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와 인근 전남지역 16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1분기 기업경기 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전분기(86)보다 7포인트 하락한 '79'로 집계됐다.

BSI는 기업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기준치(100) 미만이면 향후 경기가 전 분기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뜻하고, 기준치 이상이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업종별로는 식음료(지난해 4분기 86→1분기 107)의 경우 명절 특수로 인한 제품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체감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자동차부품(89→71), IT·전기·전자(86→72), 기계(100→95) 등은 전 분기보다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형태별로는 대기업(77→90)과 중소기업(87→78) 모두 내수 위축,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침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대내적 리스크로는 응답 업체의 44.8%가 '내수침체 장기화'를 들었고, 이어 '최저임금, 주 52시간 등 고용환경 변화'(28.1%), '투자심리 위축'(14.7%) 등을 꼽았다. 대외 리스크로는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39.1%), '투자심리 위축'(23.0%),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21.9%) 등을 들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농협회장선거 전남 후보단일화…문병완 보성조합장

24대 농협중앙회장선거 전남지역 후보로 문병완(61·사진) 보성농협 조합장이 꼽혔다.

16일 문 후보 측은 강성채(69) 순천농협 조합장과 전남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이날 정식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5선의 문 조합장은 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운영협의회 회장과 농협 학교급식협의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전국적인 입지를 다졌다.

문 후보는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과의 호남권 단일화 여부에 대해 "아직 진척된 내용은 없지만 상대 후보 측이 단일화를 논의해오면 응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유력 후보군은 16~17일 정식 후보자 등록 기간을 거치면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식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1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0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